

광주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 체력단련대회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가 지난 30일 광주 어등산 CC에서 '2024 추계 회원 체력단련대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체력단련대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을 비롯해 윤경도·이영모·김영록·유권규 광주회 고문, 박오주·김동균 자문위원, 박봉식 광주세무회장과 회원 1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초·트레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김성후 회장은 "이번 체력단련대회를 계기로 회원 각자의 취미생활 및 건강 증진에 더욱 힘

쓰길 바란다. 우리는 세무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단합할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며 "AI 및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9월의 마지막날 광주지방회 체육행사에 참석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체육행사를 통해 반목과 갈등을 떨쳐 버리고 1만6000여 회원이 하나가 된 세무사 공동체로 더 나은 미래, 세무사 황금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i@kwangju.co.kr

ACC, 키르기스스탄 박물관 관계자 초청 연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0월 5일까지 ACC 문화교육실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문화자원관리 및 활용 지원을 위한 한국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
(사진) ACC는 지난 30일 오전 ACC 회의실에서 이강현 전담장,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및 박물관 관계자 초청 연수' 개회식을 갖고 유목문화권인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자원 디지털 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연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며,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및 ODA 사업 대상 국립박물관관계자 14명이 초대됐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담장은 "이번 연수가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자원 관리와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며 "키르기스스탄 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는 ACC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큐레이팅 전시를 개최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구의회, 주민 민원 청취 '현장 소통의 날' 행사 개최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마당에서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열고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청취했다.
(사진) 문 의장은 이날 지나치게 자란 가로수로 인해 생활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부터 불법주차 문제,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 내리는 경사로 문제 등 다양한 민원들을 듣고 공감을 나눴다.
문 의장은 "해결 가능한 민원도 있고 당장은 어려운 민원도 있었다"면서 "주민들의 생활한 의견을 의정 활동의 지침반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 Lists various TV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October 2nd.

TV프로그램

3일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 Lists various TV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October 3r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일 (음 8월 30일 己亥)
36년생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응하는 것이 좋다. 48년생 이해득실을 떠나서 임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60년생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72년생 근소한 차이가 천지간이 될 것이다. 84년생 조금 모자라긴 해도 양호한 편이다. 96년생 지금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5, 60
37년생 우직할 정도로 진득한 덕성이 필요하다. 49년생 잘 선택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어 있느니라. 61년생 무의식중에 틀린 말이 말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73년생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됨을 알고 있다. 85년생 수리에 역행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97년생 모순점이 보이거든 그대로 방치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38, 51
38년생 반드시 고쳐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50년생 재량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자. 62년생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도 근사한 일이다. 74년생 일시적인 과욕으로 인해 기존의 성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86년생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98년생 갑자기 앞질러 나가려는 이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82
39년생 원래 상태로 회귀하고 관용은 극량이 될 것이다. 51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이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63년생 무리한 판단을 자제하고 순리적으로 처리함이 해법이다. 75년생 감정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87년생 성과물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리라. 99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12, 58
40년생 운로는 좋으니 언행만 주의하면 된다. 52년생 활동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더 낫다. 64년생 예초에 마음먹었던 것은 정성적으로 진행되리라. 76년생 기괴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88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릴 것이다. 00년생 허황된 것을 피해야 손실을 최소화한다.
행운의 숫자 : 33, 54
41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53년생 부분적인 것이 큰 국면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65년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77년생 애매하다면 전례에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 89년생 새로운 문서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01년생 기다렸다는 듯이 때 맞추어 나타나라.
행운의 숫자 : 14, 67
42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같이 정해질 것이다. 54년생 견뎌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66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만사가 흉하게 된다. 78년생 수차란 이미 흘러간 물로 움직일 수 없는 법이니 미련을 버려야 한다. 90년생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으니 마음 놓고 지내도 된다. 02년생 막힘이 없으니 만사형통하겠다.
행운의 숫자 : 08, 75
43년생 결모습과 실제의 형편은 확연한 차이가 있느니라. 55년생 사정을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게 처리해야겠다. 67년생 대동소이하니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 79년생 희망의 노래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다. 91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만이 결실로 이끌 것이다. 03년생 특별한 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22, 52
44년생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56년생 당면한 문제 해결이 급하므로 부차적인 일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68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80년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세이다. 92년생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시기이다. 04년생 빨리장수를 이동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6, 65
45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57년생 겉으로만 풍성할 뿐이지 실속은 빈약하다. 69년생 불안정한 구상은 실패를 이끄는 실마리가 될 뿐이다. 81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게 하자. 93년생 한계를 벗어나려면 중차대한 단계를 밟아야 할 수 있다. 05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44, 93
46년생 거두어들이는 결과물의 수량이 늘어나는 풍요로움이 보인다. 58년생 천천히 진행해야 장해가 없을 것이다. 70년생 무조건 믿어 불이만 하면 모두 이루어지겠다. 82년생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94년생 괜히 나섰다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06년생 경험에 비추었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3, 87
35년생 가시적인 것보다 잠재적인 면에 주목해야 할 때다. 47년생 오늘 부실함은 미래에 약점의 밑거름이 된다. 59년생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방면에 득이 있다. 71년생 지나치면 폐단을 머금게 되리라. 83년생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95년생 불합리함을 자제하고 유용한 요건을 이루어 나가는 국제로다.
행운의 숫자 : 21, 55